

보도시점 2024. 11. 13.(수) 17:00 배포 2024. 11. 13.(수) 15:00

##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 성료,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및 제도 미래 비전 제시

- 민간투자 우수사례 및 주무관청 추진계획 최초 발표로,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운영형 사업 등 논의
- 내년부터 매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정부·민간이 참여하는 민간투자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가 11.12(화)~13(수) 이틀간 개최 끝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0년간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국제기구 및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발표 및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간투자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지난 30년간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도로, 철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적기 공급될 수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나아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직면한 공사비 및 금융 비용 상승 등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아시아·유럽 등 세계 각국의 민간투자 관련 주요 동향 및 이슈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민간투자의 도전 과제 및 대응」을 주제로, 사회 기반시설의 노후화, 재원조달 어려움 등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도전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해당 세션에서는 호주의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인프라펀드 경험 등이 공유되며, 국내 개량운영형 사업 확대 방안과 재원조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참여방안으로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설립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세션은 「미래 지속가능한 민간투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돌봄 등 복지, 신재생에너지, AI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일본·미국 등 해외의 운영형 민자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형 사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표 4개사(대우·현대·한화·금호) 및 공공기관(SH공사)에서 도로·철도·환경·교육 및 신유형 분야의 민간투자사업 우수사례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인사들은 한국 기업에 관심을 표하며, 본국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가 국내 기업의 기술적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고, 해외 민간투자사업에 국내 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번째 세션은 국토부·해수부·환경부·서울시·경기도·부산시에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에서 ‘향후 민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최초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정책방향 공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세션은 업계에서 컨퍼런스 전부터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세션으로, 업계 관계자는 ‘민간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업계에서도 오늘 주무관청에서 발표한 향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폐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그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여러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①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및 AI 등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②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응으로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등을 정부도 깊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 중인 민자도로를 확장·증설하기 위한 첫 번째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민간에서 제안되어 검토 중’이며, ‘KB발해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간투자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걸음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세계은행(WB) 아이샤 윌리엄스 인프라금융국장과 면담을 통해 민간투자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세계은행(WB)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와 공동으로 정부·국제 기구·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국제 동향과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       |                  |     |     |     |                      |
|-------|------------------|-----|-----|-----|----------------------|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br>민간투자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오지훈 | 044-215-5450         |
|       |                  | 담당자 | 사무관 | 조문경 | keepangel88@korea.kr |
|       |                  | 담당자 | 사무관 | 최우리 | woori19@korea.kr     |
|       |                  | 담당자 | 주무관 | 정명지 | papasji@korea.kr     |
|       |                  | 담당자 | 주무관 | 함영준 | hssr9632@korea.kr    |



##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입니다.

먼저,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개발연구원,  
주제발표 및 토론자,  
참가해주신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 관계자에게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 2 컨퍼런스 성과 및 향후 과제

아시다시피 정부는 민간자본으로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민간투자법의 모태 격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을 1994년 마련했습니다.

이후 민간주도성 강화와 대상 사업 다양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바꿨습니다.  
민간투자제도 30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150여개 기관에서 300명 이상 참석해 주셨고,  
이틀간 5개 세션, 14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그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여러 세션에서 공통적으로 발표해주신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및 AI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개량과 증설 투자비 조달을 중심으로 하는  
개량 운영형 사업 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형 사업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지 공모형의 ‘서울시 민관동행사업’ 이나,  
도로·환경·항만 등 분야별 상위계획에 포함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3 국제협력 강화

---

더불어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내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정부·국제기구 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하는  
민간투자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여  
민자사업의 국제동향과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지난 30년간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4 마무리 말씀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자도로의 확장·증설을 위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이미 민간에서 제안해 검토 중입니다.

‘KB발해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절차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일방의 ‘민간자본 유치’가 아닌 상호협력하는 ‘민간투자’ 향후 30년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차례입니다.

어제와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셔서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